

안상수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독창적인 한글 글꼴을 개발해 온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안상수 교수가 3월 23일 독일 라이프치히 시가 수여하는 올해 구텐베르크상을 수상했다. 라이프치히시는 안 교수가 “보기 드문 조형 능력과 특출한 감수성을 지닌 타이포그래퍼로 혁신적인 글꼴 개발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통해 한글 글꼴을 비약적으로 쇄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상수 교수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받은 구텐베르크상은 금속 활자를 고안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를 기념해 1959년 제정됐으며, 타이포그래피, 서적 일러스트레이션, 서적 편집과 제작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구에 시상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가장 한국적인 한글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멋을 지어내고 있는 디자이너 안상수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답변자: 안상수(디자이너 · 홍익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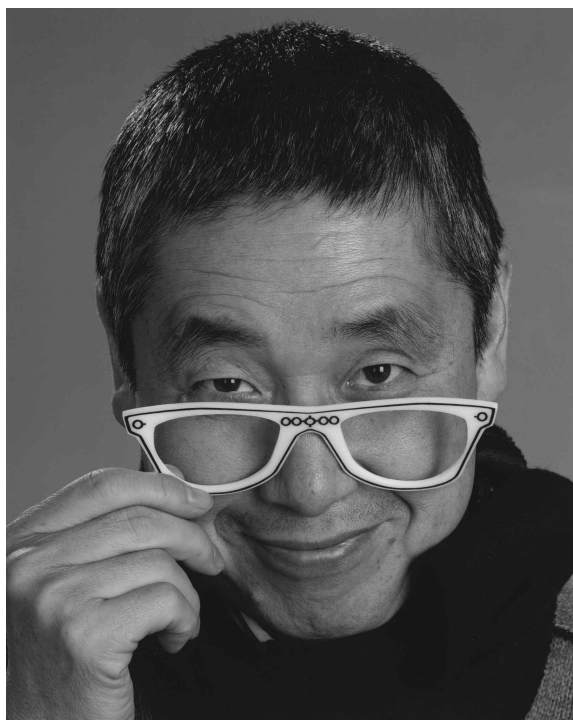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07년 2월 12일

곳: 안상수 교수 연구실 <날개집>

장승욱: 먼저 구텐베르크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상수: 고맙습니다. 3월에 라이프치히 도서전과 함께 열리는 수상자 초청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식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주최 측에서 멋진 음악가를 초대했다는데 기대가 큼니다. 5월에



계획된 파리 <아나툼 갤러리> 초대 개인전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자 작품집 발간 프로젝트인 <구텐베르크 갤러리>를 위해 어떤 책을 만들까 구상도 합니다.

“세종과 구텐베르크”를 주제로 올여름에 라이프치히에서 독일과 한국 두 나라 교수학생들과 공동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한글과 영어, 독일어로 출판될 것입니다. 세종과 구텐베르크는 알고 보면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딱 한 살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두 분이 동무가 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좋아하는 신경림 시인의 육필 시집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신경림 시인과 함께 시 「목계장터」의 배경이 된 목계 나루터에 다녀왔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승옥: 디자이너가 되기로 마음먹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안상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승옥: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상수: 디자인이 무엇인가, 어려운 물음이지만 저로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한두 해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는 늘 화두였거든요. “디자인이 뭐냐”, 이것이 저한테는 화두이자 공안 같은 것이었지요. 그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디자인이란 ‘멋을 내는 것’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을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그릇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이것을 ‘멋있게’ 만드는 겁니다. 디자인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이 영어 ‘디자인’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상한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무슨 비밀이 있다는, 뭔가 있을 거라는, 바다를 건너온 풍물에 대한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지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상한 중압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제가 내린 결론은 “디자인은 멋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우리말로 ‘멋짓’, ‘멋지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designing)이란 ‘멋을 짓는 것’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옷도 ‘짓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멋있게 짓는 것이지요. 멋이 풍기도록. 집도 짓고, 독도 짓고, 표정도 짓고, 안 보이는, 만질 수 없는, 시간에 의한 업도 짓는다 하고. 업의 경우는 시간의 길이가 단순한 몇 시간, 며칠이 아니라 몇 백 년, 몇 천 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멋을 지어내는 일이 ‘멋지움’이고, 그것을 하는 행위가 ‘멋짓’이지요. 요즘은 디자인 자체의 디자인 결과물보다 과정이나 행위인 디자인

닝, 곧 ‘멋짓’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되지요. 어쩌면 번역될 수 없는 말이나 개념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땅이에요. 멋이라고 하는 생각의 땅은 굉장히 언저리가 커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디자인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조지훈이 이미 많이 연구해 놓았지만, 멋은 아주 고급스럽고 찬란한 그런 멋도 있지만, 소박하거나 어눌한 멋도 있고, 심지어 촌스러운 멋까지도 있지요. 이렇게 멋의 땅은 아주 넓고 큼니다. 결국은 이 멋을 가시화하는 것, 멋을 외형화하는 것, 이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멋짐’이나 ‘멋짓’을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멋짓이라고 부르고 생각하고 대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뭘 만들어야 하는데 멋짓은 뭘 일부러 안 만들어도 멋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예 손대지 않는 것도 디자인입니다. 제가 보기엔 바로 이 멋이라는 것이 우리 디자인의 서는 땅이라고 봅니다.

장승옥: ‘한국 디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상수: 어려운 물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디자인의 제다움은 한글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옥: 디자인을 멋짓으로 부름으로써 한국 디자인이 비로소 출발하는 것으로 얼핏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상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거든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생각을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모든 것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언어를 떠난 생각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또다시 언어잖아요.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규정하고 살지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이라고 덤벼들 때와 ‘멋짓’이라고 대할 때는 차이가 커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편해졌습니다.

요즘 와서 디자인이 유행입니다. 디자인이라는 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명사에게나 갖다 붙이면 그게 디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 디자인, 찻잔 디자인, 꽃병 디자인, 초콜릿 디자인..... 이런 식으로 명사 더하기 디자인은 다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큰 것을..... 디자인에 대해 배우긴 많이 배웠죠. 디자인이라는 건 삶의 질을 높이고 어찌고, 바우하우스는 어떻게 정의를 했고 하는 따위를 배우고 외우기도 하지만 웬지 그게 공허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환경이니 지속 가능이니 생명이니 상생이니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은 그 가운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 왔다고 할까. 뭔가 풀리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남이 뭐라고 하면 제가 번듯하게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제가 푼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 오던 중 마침내 ‘멋짓이구나!’ 했지요.

장승옥: ‘결’과 ‘깎’에 대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은 알겠는데 ‘깎’이라는 건 뭔가요?

안상수: 깎이라는 건 빗깎, 때깎, 성깎에서 보듯이 결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아닌가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태, 성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맛깎스럽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제 맛깎을 내는 것, 저는 그게 멋이라고 생각해요. 맛깎을 내게 하는 제3의 작용, 상상력의 작용,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자라는 것은 사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가 그걸 살려 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그들의 상상력으로 멋스럽게 살려 내는 거죠. 그것이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란 잠자고 있는 한글,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결이나 깎을 멋스럽게 깨워 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활자는 죽어 있거든요.

장승옥: 죽어 있는데 왜 활자(活字)라고 하는 걸까요?

안상수: 그건 기술적인 용어예요. 활자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거지요. 활자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천 년 동안 인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기술적, 문명적 계기가 구텐베

르크의 활자 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손으로 필사를 했고, 목판을 만들어 인쇄했는데, 글자가 여러 개 같은 것이 있어도 일일이 하나씩 파야 했거든요. 그러나 활자 또는 활판술 발명의 핵심은 붙박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타입(type)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활자, 영어로는 무버블 타입(movable type)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고, 글자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의미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저는 ‘죽어 있다’거나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 상태로는 생명력이 없지요. 인간의 어떤 상상력에 힘입은 감응에 의해서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장승옥: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는 활자를 살아 있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살아 있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것을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안상수: 타이포그래퍼들이 글자를 가지고 일깨워서 노는 것이지요. 하나 하나를 다. 지금은 컴퓨터로 치기 때문에 더 기계적인 대상이 됐지만, 전에는 손으로 문선을 하고 조판을 해서 인쇄를 하는데, 기계적 즉각적 재생산이 아니라 사람이 만지고 다듬고 키우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하잖아요. 이걸 하는 과정을 저는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타이포그래피의 재미는 저의 상상력을 가지고 깨워서 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장승옥: 그러면 글꼴이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안상수: 그것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제 아버님이 스크랩광이였어요. 신문이 오면 계속 오려서 모아 두고, 벽에 모아서 걸어 놓고는 했는데 그게 어린 저한테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땐가 선생님이, 그땐 신문 보는 집도 많지 않았는데, 집에서 신문 보는 사람 손을 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뭘 시켰는가 하면,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같은 반 동무들에게 소개할 좋은 기사가

있으면 몇 가지 오려 가지고 와서 조례 시간에 앞에 나와서 읽어 주라고 했어요. 그때는 어린이 신문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창경원 꿈이 새끼를 낳았다, 이런 것이 기삿거리가 되거든요. 크게는 물론 아니고 2단 기사 정도로 실리지요. 그때쯤 4·19나 5·16이 났겠지만 애들이 4·19 났다 그런 기사를 오려 가겠습니까. 막 한자를 알게 될 무렵이었는데, 기사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서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께 여쭙어 토를 달아서 학교까지 걸어가면서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하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글자, 아니 신문을 유심히 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문은 타이포그래피의 중요한 미디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 주고 싶었어요. 그때 팔각 통에 담긴 유엔 성냥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한 통 사서 성냥갑을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팔각으로 상자를 만들고 붓으로 수복(壽福)이라는 글자를 써서 갖다 드리니 친구 아버님이 아주 좋아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앞에 말한 두 가지 기억은 제가 타이포그래피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들이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가 학교 신문 기자가 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생 편집장까지 하는 동안 인쇄 현장에 가서 활자와 씨름하면서 교정 보고 판도 짜고 했지요. 물론 제가 디자인 전공이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체험을 가졌다는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욱: 디자이너로서 물론 좌절할 때도 있으셨을 텐데요?

안상수: 그럼요. 매일 좌절하고 매일 일어나고..... 그러니까.

장승욱: 글꼴 개발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글꼴을 몇 가지나 개발하셨습니까?

안상수: 몇 가지 안 됩니다. 안상수체,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장승옥: 글씨체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안상수: 라틴 글자꼴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라몽(garamond), 바스크빌(baskervill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이름 없이 대접받는 것이 싫기도 했고요. 또 지은이의 이름을 붙여 떳떳하게 인정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익명성이 겸손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안상수체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상체는 만든 다음에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 보여 주었더니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시인 이상을 무척 좋아하는데, 속으로 이상이라면 틀림없이 이 글씨체를 좋아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상체라고 붙였습니다. 이상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고도 생각했지요. 일종의 헌정인 셈이지요.

미르체, 마노체의 미르는 제 큰아들 이름입니다. 마노는 작은아들 이름이고요. 다음 글꼴을 만들면 그것에는 아내 이름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장승옥: 미르, 마노는 어떤 뜻인가요?

안상수: 우리말인데, 미르는 용이고, 마노는 남북을 뜻합니다. 마녝, 노녝, 새녝, 저녝. 새저마노, 이게 동서남북이거든요.

장승옥: 마녝과 노녝 같은 말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안상수: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숨결새벌 선생이 계신데 그분이 가르쳐 주셨지요. 이분은 순 한글만 씁니다. 한글의 힘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을 저는 이분께 배웠습니다. 숨결새벌 선생에게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한글로 본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한글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의식적으로 그렇

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일부러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승옥: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안상수: 보고서를 만드느라 숨결새벌 선생 인터뷰를 했던 게 10년은 지난 것 같은데, 그 뒤로 그 말을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처럼 몸에 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있으면 우선 한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멋짓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원히 디자인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 끝에 만난 것이지요. 어색하지만, 그리고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 스스로 다른 지점, 다른 생각을 찾아내는 방아쇠로 생각합니다. 한글이 그 길잡이가 돼 주지요. 제 동무인 조각가 금누리 교수는 그러한 면에서 또 하나의 스승입니다. 그도 한글만 쓰기 시작했거든요.

장승옥: 한글의 우수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글자로서 한글이 가진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상수: 정말 한글은 미래 글자입니다. 한글이 갖고 있는 조형성 참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6백 년 전에 이렇게 현대적인 꼴을 띠고 태어났다는 것, 그렇게 디자인됐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저는 한글을 디자인된 것, 디자인의 결과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창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회대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세종 대왕이라는 인물이 디자인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세종 대왕을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로 모시고 삽니다. 그 디자인된 한글이 6백 년 전에 아주 간명한 형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민족에게 처음 던져진, 강제로 경험하게 해 준 최초의 현대, 현대 그 자체예요.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엄청난 문화 충격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만리는 지금으로 치면 학술원 부원장인데, 탐관오리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따르고 존경하는 무리도 많았고. 이런 사람이 목을 내놓고 상소를 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매도해선 안 되는 게 당시의 현실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으

로 말하면 영어 알파벳을 잘 써 왔는데 왜 새로 무엇을 만드는가? 국제화에 어긋난다는 식이지요. 그때 한자의 위력이랄까 국제적인 위상은 지금의 영어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내질러 버린 것이지요. 큰 망치로 커다란 유리창을 한 방에 깨 버리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도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저는 바로 그 당돌한 지점이 우리나라 디자인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이런 것들은 중국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재에는 뭔가 다른 맛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한글은 전혀 다른 어떤 것이예요. 전혀 다른 창의적인 디자인을 지어낸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참고했지요. 송나라 음운학, 파스파 문자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글자들, 성리학의 철학적 배경 등을 두루 섭렵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현대적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모두 거쳐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글자의 형태나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고 통쾌합니까. 당시로는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태가 갖고 있는 힘을 보십시오. 처음 제가 만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보여 주면 첫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그래픽하냐”는 것이거든요. 그래픽하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맛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 이론적 배경이나 발상의 스케일이 가히 우주적입니다. 이를테면 하늘을 상형해서 우주를 점 하나 찍어 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디자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혀요. 설령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디자인으로 실천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지요. 천지인, 하늘을 상징해 점을 찍고 땅을 상징해 선을 긋고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이것과 이것이 결합해 저것이 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일, 그냥 이것과 이것뿐이라면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시스템화한 것이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현대 디자인을 그냥 실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글이 가지는 글자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디자인은 길어야 사오십 년 가지만 글자는 천 년 이상 가는 디자인이고, 그 쓰임새는 한 나라의 문화를 죽이거나 살립니다. 인디언의 문화가 아무리 찬란했다 하더라도 글자가 없으니 남아 있는 것이 희미합니

다.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존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를 살려 놓은 힘, 글자의 힘, 한글이 주는 엄청난 힘,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큰 힘을 느낍니다.

장승옥: 서가를 보니 한문에도 조예가 깊으신 듯합니다. 한자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안상수: 많습니다. 저는 한자의 상상력에 주목합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글자는 그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자 역시 그림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특히 갑골 문자, 쇠 글자(金文)의 모양은 저를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추상 개념을 표현하는 회의(會意) 글자의 상상력 유희가 특히 즐겁습니다. 또 넓고 깊은 한자 서예의 바다를 보고 노니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장승옥: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상수: 물음이 멋집니다. 그렇지만 답하기 쉬운 물음은 아니군요. 있기는 있습니다. 누구엔가, 아니면 무엇엔가 가능한 한 해코지를 하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지켜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코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힘이 닿는 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자꾸 생각하게 하는 물음입니다.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장승옥: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안상수: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승옥: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를테면 경험, 상상력, 지구력 같은 것들 중에서 말입니다.

안상수: 모두 다 중요하겠지요.

장승옥: 디자이너로서 선생님의 찾을모(장점)를 꼼꼼함과 끈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수: 찾을모…… 멋진 말이네요. 한글 멋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악하는 친구 한둘이 언젠가 ‘물빛’이라는 말을 했을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색(水色)을 물빛이라고 부르더군요. 수색이라고 하면 수색대가 생각나고, 군부대도 있으니 웬지 살벌한 것 같고, 그런데 물빛이라고 하면 낭만적인 느낌이 들지요. 저녁놀이 아름다울 것 같고.

본론으로 돌아가면, 꼼꼼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별로 그렇지 못한데……. 마찬가지로 또한 끈기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장승옥: 어떤 분은 디자인이 아닌 다른 분야와 네트워크를 이루는 능력을 선생님이 가진 힘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그런 점을 의식하고 특별히 노력하고 계신지요?

안상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짜릿합니다. 화학 반응, 이중 교배…… 이런 말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다른 분야, 심지어는 다른 종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장승옥: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안상수: 고맙습니다.